

‘나주 배’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 잔걸음



나주시가 대표 특산물인 ‘나주 배’의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을 위한 9부 논의를 끝냈다.

전국 최대 배 주산지인 나주시는 최근(4월 26일) 나주배 전통농업의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 여부를 평가할 농업유산전문위원회 2차 현장 평가가 실시됐다고 2일 밝혔다.

국가중요농업유산은 국가가 보전하고 전승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농업유산을 뜻한다. 100년 이상 농업·농촌지역 환경과 사회·풍습 등에 적응하며 형성시켜온 유·무형의 농업자원이 해당된다.

농업유산으로 지정되면 농촌의 다원적 자원을 보전하고 이를 전승·활용하는데 필요한 자원조사와 관리계획 수립, 주민교육 프로그램 추진 등에 3년 간 10억원 규모의 국비를 지원

받는다.

나주시는 반세기 오랜 역사성을 가진 전통농업유산인 나주배의 가치 보존과 계승을 위해 지난 해 6월 농림축산식품부에 ‘영산강 나주배 농업유산 시스템’(공식명칭)의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을 신청했다.

이를 통해 지난 해 7월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등 5개 전문기관과의 업무협약 체결 및 민관 TF팀 구성, 농가·주민 간담회를 개최하며 유산 지정의 당위성과 절차적 체계성 확보에 힘써왔다. 이어 10월에는 1차 농업유산전문위원회 회의 발표 이후 2차 현장 평가 대상으로 선정됐다.

유산 지정의 사실상 마지막 관문인 이번 현장평가는 금천면 나주배박물관 PPT발표, 3대 째 전통농법으로 배 농사를 지어온 금천면 원곡리 이병곤

나주시, 심사위원단 2차 현장평가 진행 나주 배 고유농법 시연...이달 최종 발표

농가 방문·시연 순으로 진행됐다.

시는 세종실록지리지(1454년, 호남읍지(1871년) 등 역사 문헌에 기록된 나주 배 농업의 역사성과 지속성을 비롯해 지역 고유의 전통재배농법과 변천사, 배 농업 계승 노력, 생태적 보존 가치 등을 심사위원단에게 적극 어필했다.

나주배에 대한 가장 오래된 기록은 1454년 편찬된 세종실록지리지에 나주목의 토산물(土貨物) 목록에 나주배가 포함되어 있는데 찾아볼 수 있다. 1871년 발간된 ‘호남읍지’에서도 나주배를 왕에게 바친 진상품으로 기록했다.

농가 현장 평가를 찾은 심사위원단은 나주 배 고유 농법 중 수리 및 저장 체계인 ‘암거배수’와 ‘반지하저장고’에 큰 관심을 보였다.

‘암거배수’(暗渠排水)는 흠관 방식의 전통농법 수리체계로 대지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약 60cm의 토관(내경 10cm)을 배수로에 설치하고 그 위로 자갈, 모래, 벚꽃과 같은 유기물을 차례로 덮어 토대를 다진다. 이어 시누대 다발을 토관 사이사이에 세워 자연스럽게 물을 암거 배수에 따라 흐르게 한다.

토양 배수가 관건인 나주 배 재배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농법으로 구릉지에서 평야까지 배 재배지역이 확대됨에 따라 배수가 불량한 곳에서 쓰였다. 향아리 속 왕겨를 넣어 배를 저장하는 향아리저장법에서 진일보한 ‘반지하 저장법’은 명칭 그대로 반 지하에 땅을 파고 배를 보관하는 방법이다.

적정 온도(14℃)와 습도(95%)를 유지해 10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배를 저장할 수 있어 현대적인 저온저장고가 상용화되기 이전의 배 저장법으로 널리 행해져왔다.

이외에도 심사위원단은 초생재배법, 천연퇴비법, 발원법 등 나주만의 배 재배 농법 시연 현장을 두루 살폈다.

이번 현장평가 결과는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자문위원회를 거쳐 이달 중순 경 최종 지정 발표될 예정이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영산강 나주배 전통농업이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되면 배 농업 전통문화 보존뿐만 아니라 배 주산지 명성 유지와 브랜드 가치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기동취재본부



곡성군, 6일부터 이틀간 영농현장 방문해 청년후계농 목소리 듣는다

곡성군이 5월 6일과 7일 양일간 청년농업인들의 영농현장에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현장방문은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청년농업인 13명이 대상이다. 군은 이들의 농업현장을 체크해보고 의무사항 안내와 농업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할 예정이다.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은 청년 후계농을 선발해 월 최대 100만원의 정착지원금을 최장 3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만 40세 미만, 영농경력 3년 이하의 청년농이 대상이다. 현재 곡성군은 총 36명(2018년 7명, 2019년 9명, 2020년 10명, 2021년 10명)을 선

발하여 지원하고 있다.

이외에도 곡성군은 청년농 육성을 위한 정책을 늘려가고 있다. 얼마 전에는 청년농업인 연구동아리 지원 사업으로 1팀 11명 선정을 완료했다. 이들에게는 영농 정보교류 활동, 선배농업인 초청 강의, 그룹스터디, 문화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군 관계자는 “청년농업인의 의견을 반영해 더욱 튼튼한 농업기반을 갖추 수 있도록 청년들의 간담회와 현장지도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 또한 청년농업인이 영농에 정착할 수 있도록 맞춤형 청년농 지원 사업을 꾸준히 발굴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곡성=양혜영기자

담양군, 지역 농특산물 온라인 판매 활성화 총력

담양군이 코로나19 확산 여파에 따른 판매 농식품업체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온라인 판매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담양군은 4일 오후 2시부터 1시간 동안 지역 농특산물 전문 판매장인 ‘담양장터 풀’에서 네이버 쇼킹라이브를 채널을 통해 온라인 판매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라이브 방송에서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참살 약과, 강정 등을 한정 특가 판매하며, 퀴즈 이벤트를 진행해 대숲맑은 담양쌀과 담금주 키트 등을 증정한다.

최형식 담양군수는 “앞으로도 지역 경기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펼쳐 주민의 실질적인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담양=박종영기자

구례군, 가공농업인 해썹(HACCP) 교육 실시

농산물가공지원센터 HACCP 인증 사용단체 위생 마인드 함양



구례군은 지난 4월30일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사용단체인 구례지리산식품가공협동조합 조합원 40명을 대상

으로 ‘HACCP 적용업소 운영관리를 위한 개인 및 시설의 위생 및 안전 사용’ 교육을 실시했다.

구례=박진호기자

이번 교육은 사용단체가 보다 위생적으로 가공시설을 이용하여 안전한 농산물 가공제품 생산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했다.

구례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는 지난해 12월 과자, 빵류, 잼, 액상차, 기타 농산가공품 분말류의 5가지 유형에 대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로 인증 받아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김순호 군수는 “HACCP 인증으로 가공농업인들에 대한 농산물가공지원센터의 신뢰도가 높아졌으며, 이번 교육을 통해 사용단체의 식품제조 마인드 함양과 바른 먹거리를 생산으로 농가소득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성군, 스마트 농업으로 똑똑하게 농사 짓는다

장성미래농업대학에 스마트농업학과 신설...테스트베드 교육장 조성

장성군이 미래 농업을 선도하기 위한 선제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군은 정보통신기술의 융합으로 대변되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스마트 농업 관련 정책과 미래인재 육성 등을 중점 시행 중이다.

먼저, 정보통신기술을 농업에 적용한 ‘스마트팜’(smart farm) 전문 인력 육성에 집중하고 있다. 장성군은 체계적인 스마트 영농기술 보급체계 마련을 위해 올해 장성미래농업대학에 스마트농업학과를 신설했다. 입학생들에게 스마트팜의 기초 원리부터 아이씨티(ICT, 정보통신기술)를 활용한 복합 환경제어, 데이터 분석법에 이르기까지 전문적인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현장실습교육 비중을 늘려 현장활용능력도 강화시킨다.

지역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스마트팜 지원은 ‘스마트팜현장지원센터’가 맡고 있다. 2019년에 설립된 지원센터는 지역 내 스마트팜 농가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상담 및 지원, 작물 생육 데이터 공유 등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신규사업인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test bed, 신기술 시험을 위한 시스템 또는 설비) 교육장’ 조성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체험형 실습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이밖에, 소규모 단동하우스를 대상으로 기상장비, 시설제어장치, 통신장비 등 보급형 스마트팜 시설을 농업과 연계 지원해 스마트팜 제어시스템 적용에 대한 농가 부담을 경감시키는 한편, 영농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기동취재본부

“ 땅에서 나는 음식 중에 토란보다 맛있는 것은 없다 ”

허균 <도문대작>

